

의견, 여론지각, 지각편향이 공개적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

박선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혜경**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의 관계가 의견분포가 상이한 지역에서도, 상이한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분석하고, 이슈에 대한 의견과 지각편향이 의견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여론형성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이슈에 대한 의견과 의견강도는 이슈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의견표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지만, 여론지각은 지역과 이슈에 따라, 의견표명지역에 따라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고, 지각편향집단간에는 의견표명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반대의견과 의견강도는 의견표명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으나 여론지각은 침묵의 나선이론과 달리 어떤 이슈에서도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편향집단에서 의견표명의사가 낮게 나타나 지각편향이 의견표명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여론형성과정에서 하드코어는 두 이슈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았고 반대편향의 비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연구결과는 의견표명을 설명하는 여론관련 변인들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주제어: 의견표명, 의견, 의견강도, 여론지각, 지각편향, 여론형성 역할유형, 지역

* parksh@chosun.ac.kr

** hancon@pknu.ac.kr

1. 문제제기

침묵의 나선이론 요체는 사회적 의견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여론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각되는 여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특정 의견이 특정 사회 내 지배적인 여론으로 구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Noelle-Neuman, 1993; Schuefele & Moy, 2000). 사회적으로 지배적 의견으로 지각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소수의견으로 지각된 의견은 표현이 자제되는 과정을 통해 다수지각의견이 여론이 된다.

침묵의 나선이론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여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립의 두려움이라는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론정치’라고 불릴 만큼 정치과정에 미치는 여론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이 이와 같이 비합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적 의견이 동질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채널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다수지각에 의한 여론형성이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여론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론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견표명이다. 개인은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때 비로소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표명 여부가 주변 여론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여전히 중요한 정치변수인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간 여론격차는 되풀이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지역에 대한 여론지각은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론형성과정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여론지각이 의견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가설은 침묵의 나선이론이 처음 제기된 197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지만 여론지각과 의견표명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Glynn, Hayes & Shanahan, 1997; Scheufele

& Moy, 2000).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의견표명이 여론지각 준거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지각은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변 의견을 감지할 때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는가에 따라 여론지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의견표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서 특정이슈에 대해 여론지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변인, 즉 지역과 같은 변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시켜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슈의 경우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이슈에 따라 의견표명이 달라지는가를 추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사람들은 의견분위기를 파악할 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다수인가 소수인가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하고 전체 의견분포의 지형에서 자기 의견을 위치지우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거나 다수의견이라고 지각될 경우,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가치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경우 의견표명의사는 높아지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다수지각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지각편향과 같은 여론관련 변인들이 의견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침묵의 나선이론의 핵심요인인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의견표명에 관한 논의

한 사회의 여론은 두 가지 유형, 즉 특정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형성되는

합리적이고 도구적인 여론과, 사회통합을 위해 강제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여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Noelle-Neuman, 1995). 두 가지 유형의 여론을 구분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는 의견표명이며, 의견표명(expression of opinion)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이 여론으로서 발현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의견표명에 대한 접근 역시 여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Scheufele, 1999; Scheufele & Moy, 2000; Scheufele & Eveland Jr., 2001). 도구적/합리적 수단으로서의 여론에서는 정치토론이나 의사결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며, 의견표명은 허버마스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논쟁이나 견해를 의미한다. 반면에 사회적 통제로서의 여론에서 의견표명은 구두표현이나 얼굴표현, 제스처, 가시적인 심벌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여론분포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의견표명은 숙의적 정치대화와 적대적 상황에서의 의견표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숙의적 정치대화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합리적으로 교환하는 인지적 차원을 의미하는 반면에,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가정하는 의견표명은 개인이 고립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압력이나 지각된 압력 하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감성적 차원을 의미한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의견교환과 논쟁 즉 숙의로서의 정치대화와, 사회적 압력과 같은 적대적 상황에서 정치이슈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의적 정치대화는 미디어 이용이나 정치지식, 정치관심, 교육과 같은 변인의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압력 하에서의 의견표명은 의견지각이나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견표명은 개인이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 즉 공개적인가 아닌가 하는 공개성의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개인이 사적인 상황에서 특정이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cheufele & Moy, 2000; Scheufele & Eveland

Jr., 2001).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여론 모델에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자 하는 동기는 일반 시민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이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정치이슈에 관해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동기는 의식적으로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토론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공중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지식이 있는 소수의 식견 있는 시민에 국한된다. 반면에 사회적 통제로서의 여론 모델에서는 여론형성 및 표현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분포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과 사회적 의견을 비교하여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의견표명은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는 의식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의견분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제로서의 여론형성과정에서 공중은 특정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며, 따라야 할 공적 압력으로서의 여론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여론은 소수의 식견 있는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론을 제재나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의견 혹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표현해야만 하는 의견(Noelle-Neumann, 1993)이라고 본다면, 의견표명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의견, 여론지각, 지각편향과 의견표명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숙의나 일상적인 정치대화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정치이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할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수의 식견 있는 시민들을

전제한다. 그러나 개인적 관심영역에서 전형적인 시민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정치영역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정신적 수행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Schumpeter, 1943, 1976). 따라서 여론형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이 의식적으로 정치이슈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일반 공중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의견기후를 탐색하면서 자신들이 지각한 여론분포에 따라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론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표현은 여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Cooley, 1956; Scheufele & Moy, 2000에서 재인용). 여론분포에 대한 지각이 의견표명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침묵의 나선이론이 여론형성과정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의 하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론지각이 의견표명의사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지만 침묵의 나선이론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lynn, Hayes, & Shanahan, 1997). 의견분포에 대한 지각은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의 입장이나 사회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의견기후에 대한 지각은 대인간 의견교환이나 표현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것인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Scheufele & Eveland Jr., 2001). 특히 후보자 선호도가 강한 사람, 즉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공개적인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투표나 모금활동과 같은 비공개적인 의사표현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후보자 선호도와 같이 개인이 특정 이슈나 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강도가 의견표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강도는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든 또는 일반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든 준거집단과 관계없이 개인의 의견표명의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Glynn & Park, 1997; Krassa, 1988). 의견강도가 약한 사람,

즉 의견에 대해 중립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 이슈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그 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으며, 자신의 견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무시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의견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여론분포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든 하지 않든,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가에 대한 여론지각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하드코어(hardcore)일 수 있다.

하드코어는 의견표명에 미치는 여론지각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드코어는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견이라고 지각하더라도, 또는 자신의 의견과 지각된 여론이 일치하지 않는 의견불일치(opinion incongruity)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일컫는다. 하드코어의 존재는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자신이 투표할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믿을수록 오히려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의지가 높았다(Scheufele & Eveland Jr., 2001). 이는 후보자 선호도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지각할 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다수라고 지각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과 정치토론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yatt, Katz & Kim, 2000). 응답자들이 이미 자신의 의견이 다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 이슈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여론환경에서 소수라고 지각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더 활발하게 의견표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묵의 나선이론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김무곤·안민호·양승찬, 2001). 이 연구는 이를 두고 ‘침묵하는 다수와 목소리 높이는 소수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된 의견불일치는 공개적, 비공개적 참여행위를 방해할 수도 있지만 정치활동을 독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소수의견지각이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엘레노이만의 주장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론지각 외에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관

런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인의 의견이 다수의견인가 소수의견인가를 판단하는 여론지각은 여론지각과정에서 개인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과한다. 여론지각과 관계없이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일 때 의견표명의사가 높을 수 있다. 의견표명 자체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쉬운 이슈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의견표명에 적극적일 수 있다. 양승찬(2005)의 연구는 여론지각 외에 개인의견에 따라 의견표명이 달라지는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집단이 의견표명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 집단에서 미래 의견지각과 의견표명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의견표명은 개인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견에 따라 여론지각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의견이 여론지각과 결합하여 의견표명의사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은 이준웅(2001)의 연구에서도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는 1992년 영국 총선예측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회피하는 보수주의자효과(a shy Tory Factor)’를 국내의 16대 총선 예측조사 연구에 적용했다.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여론환경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를 때, 즉 자신들이 소수파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수지각이냐 소수지각이냐 못지않게, 여론불일치를 지각하는 경우에도 그 편향의 방향에 따라 의견표명의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수지각자라 하더라도 보수적인 의견을 지닌 사람이 자신과 달리 진보적 의견이 다수일 것이라고 지각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의견표명의사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후보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에 관해 의견표명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양승찬, 200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사람

들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문화적 편파인식(cultural bias)을 가지고 있다(오미영, 2005; Glynn, 1989; O'Gorman & Garry, 2001). 특정이슈와 관련된 분야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진보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conservative bias)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보다 진보적이라고 지각하는 진보편향(liberal bias)보다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이 많다.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나 가치에 더 가깝다고 인지함으로써 의견표명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표명과 관련한 여론지각의 영향력은 다수 지각과 소수지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지각여론이 어느 방향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지각편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론지각에만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 아니라 특정이슈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지각편향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성향 그리고 지역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 이외에도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적 태도 등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의견표명의 예측 요인들로 포함시키고 있는 요인들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요인의 예측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쉐플레와 이블랜드(Scheufele & Eveland Jr., 2001)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의견표명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윌넷 등(Willnat, Lee & Detender, 2002)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한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이준웅(2001)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 연구의 결과들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연구마다 분석대

상이 다르고 함께 검증되는 독립변인들의 구성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견표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의견표명에 적극적일 것으로 가정한다.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로 정치관심과 정치효능성과 같은 정치적 태도 변인들과 정치토론빈도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여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한 양승찬(Yang, 1997)의 연구에서 정치관심과 정치효능성은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었으며, 정치토론빈도는 셰플레(Scheufele, 1999)의 연구에서 의견표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치관심과 정치효능성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들에서도 이 변인들은 의견표명과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이준웅, 2001; 한혜경, 2003; Lasora, 1991). 정치토론빈도와 의견표명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의 축적은 앞의 두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지만, 셰플레와 이블랜드(Scheufele & Eveland Jr., 2001)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정치토론빈도 역시 의견표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거의 미미한 상태이지만 지역도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 구성원의 동질성 정도와 상호의존적 문화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지역 간에 여론분포의 편향성의 정도와 소수의견에 대한 용인성 정도 역시 다를 수 있으며(박선희·한혜경, 2007), 이는 곧 의견표명 분위기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치적 자유의 정도와 상호의존적 문화의 정도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침묵의 나선이론이 적용되는 정도가 다름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 내의 지역들 간 의견표명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어떤 특성이 의견표명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과 대구 두 지역 간 침묵의 나선이론 적용정도를

검증한 양승찬(1998)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보상받고 중앙정치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지역에서는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전제하는 방향으로 두 변인의 관계가 설정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반화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 간 비교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관련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듯이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론지각이다. 그런데 여론지각은 준거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박정순·원우현·김정탁(1987)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남북 문제에 관해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자신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글린(Glynn, 1989)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이웃들은 자신보다 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준거집단에 따른 여론지각의 차이는 의견표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Glynn & Park, 1997; Krassa, 1988) 의견표명의사를 검증하는 데 개인이 어느 준거집단을 염두에 두고 여론지각을 하는가, 의견표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슈에 따라서도 여론지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회문화적 통념과 관련된 가치지향적 이슈의 경우 보수적 편향이나 진보적 편향이 나타나며, 단순한 시사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지각한다(Fields & Schuman, 1976). 인터넷 여론조사결과가 의견지각 및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슈유형에 따라 의견표명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박은미, 2007).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상이한 여론분포를 보여온 두 지역 즉 부산과 광주를 선택하고 이들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와 특정 지역과 연관된 이슈를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의 의견표명과 상대지역에서의 의견표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의견, 여론지각, 지각편향은 의견표명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과 이슈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태도 요인, 지역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론관련 변인들, 즉 의견, 여론지각, 지각편향은 의견표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가?

사회구성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론형성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침묵의 나선이론은 다수지각의견을 가진 집단이 의견표명에 적극적이고 소수지각의견을 가진 집단은 침묵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다수의견지각이면서도 침묵하는 집단과 소수의견지각이면서도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집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견이라고 지각하더라도 사람들은 침묵을 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하는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추종하게 되며,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견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여론형성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론형성과정의 중요한 두 변수인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을 교차하였을 때 각 집단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각 집단의 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정이슈에 대한 의견과 의견강도, 지각편향 등 여론관련 변인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3 여론형성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을 교차시켜 유형화했을 때, 역할유형별로 여론 관련 변인 즉 의견 의견강도, 지각편향에 차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¹⁾

1) 조사방법

여론지각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적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산과 광주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 간 여론차이는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이슈이되 지역적 이해관계가 다른 이슈가 포함된 불법도청관련 이슈를 선택하였다. 불법도청 사건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가 삼성에 대해 불법도청을 했고 이 불법도청자료가 2005년 7월 MBC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논란이 된 사건이다. 불법도청 사건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는, 안기부가 불법도청한 내용 중 공적 사안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와, 이미 만료된 김영삼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청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이슈라고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김영삼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불가피하게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남지역의 이해관계가 높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동일한 이슈에서 파생되었지만 하나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슈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이슈로, 이슈에 따른 지역 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두 이슈 모두 사회적, 규범적으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표명에 대한 여론지각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각편향의 영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는 2005년

1) 이 설문조사는 2004년 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지털랩에 의뢰하여 전화설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부산과 광주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특정 입장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다. 각각 지역에서 지역시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다를 수 있고 두 지역에서 선호되는 언론이나 두 지역의 지역 매체들의 보도 내용 역시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여론양극화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역들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302명, 광주지역 303명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 298명(49.3%: 부산 150명, 광주 148명), 여성 307명(50.7%: 부산 152명, 광주 155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146명(24.1%: 부산 66명, 광주 80명), 30대 142명(23.5%: 부산 64명, 광주 78명), 40대 137명(22.6%: 부산 72명, 광주 65명), 50대 이상 180명(29.8%: 부산 100명, 광주 8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각 지역의 성, 연령의 구성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3) 주요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의견: 이슈에 대한 의견은 전국이슈인 불법도청문제와 지역이슈인 공소 시효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의견강도: 의견강도는 특정 이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정도로, 중립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의견강도가 가장 낮은 1로, 약간 찬성과 약간 반대는 2로,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는 3으로 코딩하였다.

(3) 여론지각: 여론지각은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지각하는가 소수의견으로 지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이슈에 대한 개인 의견을 세 집단, 즉 찬성,

중립, 반대로 나누고, 다른 사람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보느냐를 물어 이들이 지각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 역시 찬성, 중립, 반대로 나는 다음, 자신의 의견과 지각의견이 일치하면 다수지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지각으로 구분하였다.

(4) 지각편향: 지각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지각이 실제 의견과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실제 의견과 응답자가 지각하는 의견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찬성편향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찬성쪽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의견에서 다른 사람 의견을 뺀 값이 -인 경우에 해당된다. 무편향은 자신의 의견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뺀 값이 0인 경우이며 지각편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편향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반대쪽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자신의 의견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뺀 값이 +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각편향은 소수지각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며, 다수지각집단의 경우 자신의 의견과 지각여론이 완전히 일치할 때 지각편향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5) 의견표명: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이슈인 불법도청 공적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과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느냐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슈인 공소시효연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의향이 있느냐, 다른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의향이 있느냐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이슈 모두에서 사적 정치대화가 아닌 공개적인 의견표명 정도를 측정했으며, 지역관계가 걸린 이슈의 경우 누구에게 의견표명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지역민과 타지역민으로 나누어 의견표명의사를 측정하였다.

(6) 정치태도: 먼저 정치관심은 ‘평소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정치효능성은 ‘정치참여의 자질’, ‘정치문제에 대한 이해정도’, ‘정치대화의 자신감’이라는 세 항목을 합산평균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 $\alpha = .62$). 정치토론은 ‘평소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분석결과

1) 의견, 여론지각, 지각편향과 의견표명

여론지각에 따라 의견표명이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다르다고 지각하는가에 따라 의견표명의사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앞서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이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듯이 불법도청 내용공개와 공소시효연장과 관련한 의견표명의사는 두 지역 모두 평균을 밑돌아 의견표명의사가 낮았으며, 특히 지역이슈에 관해 타지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더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이슈 모두에서 지역 간 의견표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론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네 가지 차원, 즉 의견, 의견강도,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응답자들이 가진 의견에 따라 의견표명의사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의견집단을 세 집단, 즉 반대집단,

<표 1> 지역 간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차이(평균)

	지역			
	부산 (N=302)	광주 (N=303)	t 값	
전국이슈관련 의견표명	2.70(1.12)	2.78(1.12)	- .838	
지역이슈관련 의견표명	자기지역	2.60(1.17)	2.78(1.14)	-1.843+
	타지역	2.56(1.22)	2.66(1.15)	-1.004

+ p < .1, 괄호안은 표준편차.

중립집단, 찬성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의견집단에 따라 전국이슈에 관한 의견표명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4.504, p<.001$). 이 같은 차이는 부산($F=15.285, p<.001$)과 광주($F=19.463, p<.001$)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찬성집단이 의견표명의사

<표 2>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집단 간 의견표명의 차이(평균)

	전국이슈											
	전체				부산				광주			
	반대 집단 (a) (N= 122)	중립 집단 (b) (N= 103)	찬성 집단 (c) (N= 379)	F값	반대 집단 (a) (N= 62)	중립 집단 (b) (N= 50)	찬성 집단 (c) (N= 190)	F값	반대 집단 (a) (N= 60)	중립 집단 (b) (N= 53)	찬성 집단 (c) (N= 189)	F값
	의견 표명	2.30 ^d (1.02)	2.25 ^c (.92)	3.02 ^{ab} (1.11)	34.504 ^{***}	2.24 ^c (.95)	2.28 ^c (.99)	2.96 ^{ab} (1.12)	15.285 ^{***}	2.35 ^c (1.09)	2.23 ^c (.85)	3.07 ^{ab} (1.09)
	지역이슈(자지역)											
	전체				부산				광주			
	반대 집단 (a) (N= 132)	중립 집단 (b) (N= 101)	찬성 집단 (c) (N= 370)	F값	반대 집단 (a) (N= 83)	중립 집단 (b) (N= 50)	찬성 집단 (c) (N= 169)	F값	반대 집단 (a) (N= 49)	중립 집단 (b) (N= 51)	찬성 집단 (c) (N= 201)	F값
	의견 표명	2.18 ^d (1.03)	2.18 ^d (1.08)	3.02 ^{ab} (1.10)	42.556 ^{***}	2.16 ^c (1.07)	2.00 ^f (.90)	3.00 ^{ab} (1.14)	25.987 ^{***}	2.22 ^f (.96)	2.35 ^c (1.21)	3.03 ^{ab} (1.07)
	지역이슈(타지역)											
	전체				부산				광주			
	반대 집단 (a) (N= 129)	중립 집단 (b) (N= 101)	찬성 집단 (c) (N= 368)	F값	반대 집단 (a) (N= 82)	중립 집단 (b) (N= 50)	찬성 집단 (c) (N= 169)	F값	반대 집단 (a) (N= 47)	중립 집단 (b) (N= 51)	찬성 집단 (c) (N= 199)	F값
	의견 표명	2.12 ^f (1.01)	2.04 ^f (1.06)	2.95 ^{ab} (1.16)	42.508 ^{***}	2.15 ^c (1.08)	1.92 ^f (.97)	2.96 ^{ab} (1.21)	23.644 ^{***}	2.09 ^f (.88)	2.16 ^c (1.14)	2.94 ^{ab} (1.12)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사후분석(Scheffe): abc간의 통계적 유의도

<표 3>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강도와 의견표명의 상관관계

		의견강도		
		전체	부산	광주
전국이슈관련	의견표명	.291***	.257***	.322***
지역이슈 관련	자기지역	.330***	.366***	.288***
	타지역	.326***	.338***	.312***

*** p < .001

가 가장 높았고 반대집단과 중립집단은 유사한 수준의 의견표명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공소시효연장 이슈의 경우 찬성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기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F=42.556, p<.001$, 부산: $F=25.987, p<.001$, 광주: $F=15.827, p<.001$). 타 지역에서의 공개적 의견표명의사 역시 찬성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전체: $F=42.508, p<.001$, 부산: $F=23.644, p<.001$, 광주: $F=18.489, p<.001$). 전반적으로 불법도청 내용공개나 공소시효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집단이 지역이나 이슈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 의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을 보여준다. 두 사안에 대한 찬성이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슈에 대한 의견강도가 공개적인 의견표명과 연관이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불법도청 내용공개에 대한 의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의사가 높았으며, 이는 부산과 광주지역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연장의 경우에도 의견강도가 클수록 공개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에 대한 공개적 의견표명의사가 높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셋째, 의견뿐만 아니라 여론지각에 따라서도 의견표명의사가 달라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전체적

<표 4>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지각집단 간 의견표명의 차이(평균)

	전국이슈								
	전체			부산			광주		
	다수지각 집단 (N=376)	소수지각 집단 (N=215)	t값	다수지각 집단 (N=174)	소수지각 집단 (N=119)	t값	다수지각 집단 (N=202)	소수지각 집단 (N=96)	t값
	의견 표명	2.85 (1.14)	2.58 (1.06)	2.919**	2.75 (1.18)	2.69 (1.05)	.433	2.95 (1.10)	2.44 (1.05)
	지역이슈(자기지역)								
	전체			부산			광주		
	다수지각 집단 (N=388)	소수지각 집단 (N=199)	t값	다수지각 집단 (N=168)	소수지각 집단 (N=125)	t값	다수지각 집단 (N=220)	소수지각 집단 (N=74)	t값
	의견 표명	2.79 (1.17)	2.55 (1.13)	2.399*	2.65 (1.21)	2.62 (1.12)	.236	2.90 (1.12)	2.45 (1.14)
	지역이슈(타지역)								
	전체			부산			광주		
	다수지각 집단 (N=282)	소수지각 집단 (N=271)	t값	다수지각 집단 (N=159)	소수지각 집단 (N=127)	t값	다수지각 집단 (N=123)	소수지각 집단 (N=144)	t값
	의견 표명	2.76 (1.23)	2.58 (1.15)	1.844+	2.75 (1.30)	2.42 (1.09)	2.394*	2.77 (1.14)	2.72 (1.19)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으로 다수지각집단이 소수지각집단보다 불법도청내용공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의사가 높았다($t=2.919, p<.01$). 이러한 차이는 부산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광주지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t=3.780, p<.001$).

공소시효연장과 관련해서는 자기지역에서 의견표명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다수지각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t=2.399, p<.05$), 이러한 차이는 광주지역에서만 나타났다($t=3.043, p<.01$). 타지역에서 의견표명을 하겠다

는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산지역에서만 다수집단이 소수집단보다 의견표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94, p<.05$). 의견표명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즉 이슈갈등이 낮거나 주위환경이 익숙한 자기지역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다수지각이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부산과 같이 이슈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지각하더라도 의견표명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타지역 의견이 자신과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의견표명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다수지각이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지역 간 여론분포가 다른 상황에서 의견표명에 대한 여론지각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이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여론지각의 방향, 즉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지각 사이에 존재하는 편향의 방향에 따라 의견표명의사에서 차이가 있는기를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지각편향 집단 간에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에서 의견표명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부산과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진 않았지만 무편향집단이 찬성편향이나 반대편향집단보다 의견표명의사가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편향 집단은 모두 다수지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강도와 다른 사람의 의견강도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표명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과, 상대적으로 의견표명이 어려운 타지역에서 지역이슈에 관한 의견표명은 찬성편향집단보다 반대편향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견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반대입장에 있다고 지각할 경우 그 역의 경우보다 일종의 규범적 우월감에서 의견표명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지각편향집단 간 의견표명의 차이(평균)

		전국이슈											
		전체				부산				광주			
		찬성 편향 집단 (N= 122)	무 편향 집단 (N= 261)	반대 편향 집단 (N= 208)	F값	찬성 편향 집단 (N= 50)	무 편향 집단 (N= 120)	반대 편향 집단 (N= 123)	F값	찬성 편향 집단 (N= 72)	무 편향 집단 (N= 141)	반대 편향 집단 (N= 85)	F값
의견	표명	2.66 (1.10)	2.82 (1.13)	2.73 (1.12)	.992	2.60 (1.09)	2.75 (1.18)	2.75 (1.09)	.361	2.69 (1.11)	2.88 (1.08)	2.69 (1.16)	1.037
		지역이슈(자기지역)											
		전체				부산				광주			
		찬성 편향 집단 (N= 118)	무 편향 집단 (N= 279)	반대 편향 집단 (N= 190)	F값	찬성 편향 집단 (N= 52)	무 편향 집단 (N= 119)	반대 편향 집단 (N= 122)	F값	찬성 편향 집단 (N= 66)	무 편향 집단 (N= 160)	반대 편향 집단 (N= 68)	F값
의견	표명	2.64 (1.15)	2.79 (1.17)	2.64 (1.14)	1.161	2.65 (1.19)	2.63 (1.19)	2.63 (1.16)	.008	2.64 (1.13)	2.91 (1.15)	2.66 (1.10)	1.882
		지역이슈(타지역)											
		전체				부산				광주			
		찬성 편향 집단 (N= 133)	무 편향 집단 (N= 183)	반대 편향 집단 (N= 237)	F값	찬성 편향 집단 (N= 104)	무 편향 집단 (N= 100)	반대 편향 집단 (N= 82)	F값	찬성 편향 집단 (N= 66)	무 편향 집단 (N= 68)	반대 편향 집단 (N= 160)	F값
의견	표명	2.53 (1.17)	2.69 (1.22)	2.73 (1.18)	1.345	2.58 (1.20)	2.60 (1.26)	2.65 (1.20)	.075	2.34 (1.05)	2.81 (1.17)	2.78 (1.18)	1.913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의견표명에 대한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독립적 영향

여론관련 변인들 즉 의견, 의견강도, 여론지각, 지각편향이 관련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리고 여론지각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독립 변인들을 차례로 투입하는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순서는 인구학적 특성, 정치태도 변인, 지역 변인, 의견(찬반여부, 의견강도), 여론지각(다수지각/소수지각), 지각편향(찬성편향/반대편향)²⁾ 변인 순이었다.

먼저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관한 의견표명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270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6.224, p<.001$) 인구학적 변인, 정치태도 관련 변인, 의견, 지각편향을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론지각을 투입한 모델과 지역 투입모델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련 변인들을 모두 투입한 모델에서 정치관심이 많을수록($\beta = .182, p<.001$), 정치효능성이 높을수록($\beta = .148, p<.01$), 정치토론에 참여할수록($\beta = .085, p<.05$), 의견강도가 높을수록($\beta = .248, p<.001$) 공적 사안 공개에 대한 의견표명의사가 높았다. 그러나 반대집단일수록($\beta = -.262, p<.001$) 의견표명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즉 불법도청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이슈의 경우 지역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표명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의견표명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지역에서의 의견표명과 타지역에서의 의견표명을 나누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먼저 자기지역에서의 의견표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치태도변인, 의견변인, 지각편향 변인을 투입한 모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272였다($F=16.261, p<.001$).

2) 지각편향을 더미변인으로 만들 때 무편향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 것은, 무편향은 다수지각을 의미하므로 다수지각 외에 지각편향이 의견표명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표 6> 전국이슈관련 의견 표명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국이슈								
	전체			부산			광주		
	다수지각 집단 (N=376)	소수지각 집단 (N=215)	t값	다수지각 집단 (N=174)	소수지각 집단 (N=119)	t값	다수지각 집단 (N=202)	소수지각 집단 (N=96)	t값
의견 표명	2.85 (1.14)	2.58 (1.06)	2.919**	2.75 (1.18)	2.69 (1.05)	.433	2.95 (1.10)	2.44 (1.05)	3.780***
	지역이슈(자가지역)								
	전체			부산			광주		
	다수지각 집단 (N=388)	소수지각 집단 (N=199)	t값	다수지각 집단 (N=168)	소수지각 집단 (N=125)	t값	다수지각 집단 (N=220)	소수지각 집단 (N=74)	t값
의견 표명	2.79 (1.17)	2.55 (1.13)	2.399*	2.65 (1.21)	2.62 (1.12)	.236	2.90 (1.12)	2.45 (1.14)	3.043**
	지역이슈(타지역)								
	전체			부산			광주		
	다수지각 집단 (N=282)	소수지각 집단 (N=271)	t값	다수지각 집단 (N=159)	소수지각 집단 (N=127)	t값	다수지각 집단 (N=123)	소수지각 집단 (N=144)	t값
의견 표명	2.76 (1.23)	2.58 (1.15)	1.844+	2.75 (1.30)	2.42 (1.09)	2.394*	2.77 (1.14)	2.72 (1.19)	.39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관련 변인들을 모두 투입한 모델에서 정치관심이 많을수록($\beta = .172, p < .001$), 정치토론을 많이 할수록($\beta = .124, p < .01$), 의견강도가 높을수록($\beta = .272, p < .001$)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의견표명의사가 높았다. 그러나 공소시효연장에 반대할수록($\beta = -.260, p < .001$) 의견표명의사가 낮았다.

특이한 점은 반대편향과 의견표명의사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것인데($\beta = -.147, p < .001$),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공소시효연장에 반대한다고 지각할수록 오히려 의견표명의사가 낮았다. 이것은 반대편향집단이 지각편향이 없는 무편향집단에 비해 의견표명의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 7> 지역이슈관련 의견표명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자치지역)

구 분		지역이슈관련 의견표명(거주지역)		
		β	R ²	R ² 의 변화
인구학적 변인	성별(남성)	.005	.010	.010
	연령	-.033		
	학력	.010		
정치태도 변인	정치관심	.172***	.149***	.139***
	정치효능성	.081 ⁺		
	정치토론	.124**		
지역	부산	.028	.153	.004
의견	찬성집단	.031	.245***	.093***
	반대집단	-.260***		
	의견강도	.272***		
여론지각	다수지각	-.037	.246	.000
지각편향	찬성편향	.079 ⁺	.272***	.027***
	반대편향	-.14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5>의 결과와 상통한다. 반면에 찬성편향집단은 미약하나마 의견표명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지각편향이 없는 무편향집단에 비해 찬성편향 집단이 오히려 의견표명에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편향의 방향보다는 편향의 유무 그 자체와 다수소수지각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의견표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은 이후 역할유형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타지역에서의 의견표명 역시 정치태도변인, 의견변인, 지각편향 변인을 투입한 모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모델의 설명력은 .247로 유의미하였다(F=13.388, p<.001).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듯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beta = .119$, p<.05), 정치토론에 참여할수록($\beta = .154$, p<.01), 의견강도가 강할수록($\beta = .237$, p<.001) 타지역민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겠다

<표 8> 지역이슈관련 의견표명에 대한 회귀분석결과(타지역)

구 분		지역이슈관련 의견표명(타지역)		
		β	R ²	R ² 의 변화
인구학적 변인	성별(남성)	-.015	.006	.006
	연령	-.015		
	학력	-.002		
정치태도 변인	정치관심	.119*	.126***	.120***
	정치효능성	.079 ⁺		
	정치토론	.154**		
지역	부산	-.032	.128	.002
의견	찬성집단	.089	.230***	.101***
	반대집단	-.224**		
	의견강도	.237***		
여론지각	다수지각	-.004	.231	.001
지각편향	찬성편향	.081	.247**	.016**
	반대편향	-.104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는 의사가 높았다. 반면에 공소시효연장에 반대할수록($\beta = -.224, p < .01$) 의견표명의사가 낮았다.

3)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특성

개인은 여론형성과정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침묵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여론지각과 의견표명 여부에 따라 이러한 역할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여론형성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여론지각(다수지각/소수지각)과 의견표명(침묵/의견표명)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역할유형별 특성을 지역, 의견, 의견강도, 지각편향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표 9>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다수지각·침묵 집단이 가장 많고,

<표 9>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지역적 특성

		전국이슈				
		다수지각-침묵 (N=170)	다수지각-의견 표명(N=127)	소수지각-침묵 (N=119)	소수지각-의견 표명(N=50)	전체
지역	부산	90(52.9%)	51(40.2%)	59(49.6%)	31(62.0%)	231(49.6%)
	광주	80(47.1%)	76(59.8%)	60(50.4%)	19(38.0%)	235(50.4%)
$\chi^2 = 8.364, df=3, p<.05$						
		지역이슈(자기지역)				
		다수지각-침묵 (N=182)	다수지각-의견 표명(N=123)	소수지각-침묵 (N=114)	소수지각-의견 표명(N=54)	전체
지역	부산	93(51.1%)	48(39.0%)	65(57.0%)	37(68.5%)	243(51.4%)
	광주	89(48.9%)	75(61.0%)	49(43.0%)	17(31.5%)	230(48.6%)
$\chi^2 = 15.322, df=3, p<.01$						
		지역이슈(타지역)				
		다수지각-침묵 (N=145)	다수지각-의견 표명(N=100)	소수지각-침묵 (N=155)	소수지각-의견 표명(N=80)	전체
지역	부산	84(57.9%)	59(59.0%)	80(51.6%)	26(37.1%)	249(53.0%)
	광주	61(42.1%)	41(41.0%)	75(48.4%)	44(62.9%)	221(47.0%)
$\chi^2 = 10.046, df=3, p<.01$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 소수지각-침묵 집단순이었으며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이 가장 적었다($\chi^2=8.364, p<.05$). 지역별로 다수지각-침묵 집단과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은 부산이 광주보다 많았고,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은 광주가 많았으며, 소수지각-침묵 집단은 두 지역 간 비슷한 비율이었다. 지역적 특색을 보이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 부산지역민이 광주지역민에 비해 자신이 소수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부산은 다수지각-침묵 집단이 가장 많았고, 광주는 다수지각-의견표명이 가장 많았다.

지역이슈에 대한 자기지역에서의 의견표명 경우 전반적으로 다수지각-침묵 집단이 가장 많고,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 소수지각-침묵 집단, 소수지각-

<표 10>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의견

		전국이슈				전체
		다수지각-침묵 (N=170)	다수지각-의견 표명(N=127)	소수지각-침묵 (N=119)	소수지각-의견 표명(N=50)	
의 견	반대	52(30.6%)	10(7.9%)	32(26.9%)	9(18.0%)	103(22.1%)
	중립	45(26.5%)	6(4.7%)	24(20.2%)	8(16.0%)	83(17.8%)
	찬성	73(42.9%)	111(87.4%)	63(52.9%)	33(66.0%)	280(60.1%)
$\chi^2 = 64.007, df=3, p<.001$						
		지역이슈(자기지역)				전체
		다수지각-침묵 (N=182)	다수지각-의견 표명(N=123)	소수지각-침묵 (N=114)	소수지각-의견 표명(N=54)	
의 견	반대	59(32.4%)	6(4.9%)	32(28.1%)	13(24.1%)	110(23.3%)
	중립	45(24.7%)	7(5.7%)	22(19.3%)	8(14.8%)	82(17.3%)
	찬성	78(42.9%)	110(89.4%)	60(52.6%)	33(61.1%)	281(59.4%)
$\chi^2 = 69.350, df=3, p<.001$						
		지역이슈(타지역)				전체
		다수지각-침묵 (N=145)	다수지각-의견 표명(N=100)	소수지각-침묵 (N=155)	소수지각-의견 표명(N=80)	
의 견	반대	40(27.6%)	5(5.0%)	48(31.0%)	9(12.9%)	102(21.7%)
	중립	32(22.1%)	7(7.0%)	32(20.6%)	5(7.1%)	76(16.2%)
	찬성	73(50.3%)	88(88.0%)	75(48.4%)	56(80.0%)	292(62.1%)
$\chi^2 = 59.914, df=3, p<.001$						

의견표명 집단 순으로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수지각-침묵 집단과 소수지각-침묵집단,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은 부산이 더 많았고,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은 광주가 더 많았다($\chi^2=15.322, p<.01$).

지역이슈에 대한 타지역에서의 의견표명 경우 전반적으로 소수지각-침묵 집단이 가장 많고 다수지각-침묵 집단,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 순으로 많았는데, 타지역에서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지각하고 의견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수지각-침묵 집단,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 소수지각-침묵 집단은 부산이 많았으나 소수지

각-의견표명 집단은 광주가 더 많았다($\chi^2=10.046, p<.01$). 자신의 의견이 타지역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의사가 광주지역민에게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의견 특성을 살펴보면, 전국이슈의 경우 네 집단 모두 찬성의견이 가장 많고 반대의견, 중립 순이었으나, 각 집단에서 찬성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으로 의견표명집단에서 찬성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i^2=64.007, p<.001$).

지역이슈에 대한 자기지역에서의 여론표명 경우 역시 네 집단 모두 찬성의견이 가장 많아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분포와 유사하였다($\chi^2=69.350, p<.001$).

타지역의 경우도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에서 찬성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의 자기지역의 경우 이 집단에서 찬성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의견일 경우, 자기지역보다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지역에서 의견표명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의견강도를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듯이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F=21.525, p<.001$)과 자기지역에서의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F=10.568, p<.001$)의 경우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의 의견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다른 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타지역에서의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경우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과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의 의견강도가 가장 높았고 이들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0.963, p<.001$). 전반적으로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과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이 높고, 다수지각-침묵 집단과 소수지각-침묵 집단이 낮아 의견표명 여부에 따라 의견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넷째, 여론형성 역할유형별로 어떠한 지각편향 분포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전국이슈의 경우 다수지각-침묵 집단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

<표 11>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의견강도

	전국이슈				
	다수지각- 침묵(a) (N=170)	다수지각- 의견표명(b) (N=127)	소수지각- 침묵(c) (N=119)	소수지각- 의견표명(d) (N=50)	전체
의견강도	1.94(.68) ^b	2.49(.59) ^{acd}	1.96(.60) ^b	2.16(.68) ^b	21.525 ^{***}
	지역이슈(자가지역)				
	다수지각- 침묵(a) (N=182)	다수지각- 의견표명(b) (N=123)	소수지각- 침묵(c) (N=114)	소수지각- 의견표명(d) (N=54)	전체
의견강도	2.03(.72) ^b	2.58(.60) ^{acd}	1.91(.54) ^b	2.20(.68) ^b	10.568 ^{***}
	지역이슈(타지역)				
	다수지각- 침묵(a) (N=145)	다수지각- 의견표명(b) (N=100)	소수지각- 침묵(c) (N=155)	소수지각- 의견표명(d) (N=70)	전체
의견강도	2.03(.69) ^{bd}	2.49(.63) ^{ac}	1.97(.62) ^{bd}	2.49(.63) ^{ac}	20.963 ^{***}

*** p < .001. 사후분석(Scheffe): abc 간의 통계적 유의도

의 의견에 대한 지각이 일치하는 무편향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반대쪽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반대편향이 15.9%,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찬성쪽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찬성편향이 12.9%를 차지했다.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 역시 무편향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편향 17.3%, 찬성편향 15.0%였다. 소수지각-침묵 집단과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 같은 소수지각의 경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찬성편향이거나 반대편향일 수밖에 없는데, 두 집단 모두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많았고 반대편향의 비율은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에서 더 높았다($\chi^2=216.359$, $p<.001$).

지역이슈의 경우, 자가지역에서 다수지각 집단의 경우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많았으나 그 비율은 침묵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소수지각 집단 역시 반대편향이 더 많았으나 그 비율은 의견표명 집단에서 더 높았다.

타지역에서는 다수지각-침묵 집단의 경우 여전히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많았으나,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은 찬성편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산지역민들이 타지역 여론을 지각할 때 자신보다 타지역 사람들이 더 찬성의견에 가깝다고 지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수지각-침묵 집단과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 모두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그 비율은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이 높았고, 이는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표 12>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역할유형별 지각편향

		전국이슈				
		다수지각- 침묵 (N=170)	다수지각- 의견표명 (N=127)	소수지각- 침묵 (N=119)	소수지각- 의견표명 (N=50)	전체
지각 편향	찬성편향	22(12.9%)	19(15.0%)	44(37.0%)	15(30.0%)	100(21.5%)
	무편향	121(71.2%)	86(67.7%)	0(0.0%)	0(0.0%)	207(44.4%)
	반대편향	27(15.9%)	22(17.3%)	75(63.0%)	35(70.0%)	159(34.1%)
$\chi^2 = 216.359, df=6, p<.001$						
		지역이슈(자기지역)				
		다수지각- 침묵 (N=182)	다수지각- 의견표명 (N=123)	소수지각- 침묵 (N=114)	소수지각- 의견표명 (N=54)	전체
지각 편향	찬성편향	15(8.2%)	15(12.2%)	47(41.2%)	18(33.3%)	95(20.1%)
	무편향	132(72.5%)	89(72.4%)	0(0.0%)	0(0.0%)	221(46.7%)
	반대편향	35(19.2%)	19(15.4%)	67(58.8%)	36(66.7%)	157(33.2%)
$\chi^2 = 231.406, df=6, p<.001$						
		지역이슈(타지역)				
		다수지각- 침묵 (N=145)	다수지각- 의견표명 (N=100)	소수지각- 침묵 (N=155)	소수지각- 의견표명 (N=80)	전체
지각 편향	찬성편향	14(9.7%)	25(25.0%)	65(41.9%)	11(15.7%)	115(24.5%)
	무편향	100(69.0%)	60(60.0%)	0(0.0%)	0(0.0%)	160(34.0%)
	반대편향	31(21.4%)	15(15.0%)	90(58.1%)	59(84.3%)	195(41.5%)
$\chi^2 = 255.082, df=6, p<.001$						

지역이슈에 대한 자გი지역 의견표명과 비교하여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여론형성과정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의견표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각편향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수지각-침묵 집단의 경우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리고 자신의 지역이 아닌 타지역일 때, 반대편향과 찬성편향의 비율이 더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의 경우, 자გი지역일 때 찬성편향 비율이 반대편향비율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소수지각-침묵 집단의 경우 의견표명 대상이 누군가와 관계없이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더 많았으며, 소수지각-의견표명 집단의 경우 찬성편향과 반대편향의 분포차이가 다른 역할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타지역에서 반대편향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편향의 방향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소수지각과 지역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침묵의 나선이론이 주장하는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의 관계가 의견분포가 상이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여론지각 외에 이슈에 대한 의견과 지각편향이 의견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여론형성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유형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을 교차하여 구분한 후 이들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불법도청 내용공개와 공소시효연장에 대한 의견표명의사는 지역과 이슈를 막론하고 평균 이하로 낮았다. 그러나 이슈에 대한 의견에 따라 의견표명의사는 달라졌는데,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에서 그 이슈에 찬성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의견표명의사가 높았다. 두 사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무엇인가에 따라 의견표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지역 모두에

서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강도가 클수록 의견표명의사도 높게 나타나 의견강도가 의견표명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기존 연구를 확인시켜주었다.

둘째, 여론지각은 의견표명에 단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지각의 준거집단이 어디인가에 따라, 의견표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리고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이슈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견이라고 지각한 집단에서 의견표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더라도 자기지역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타지역에서 자기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는 경우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다수지각이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지역 간 여론분포가 다른 상황에서 여론지각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이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각편향은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전국이슈에 대해서든 지역이슈에 대해서든, 자기지역에서든 타지역에서든 의견표명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각할수록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지각편향에 따라 의견표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론관련 변인들 즉 개인의견 및 여론지각, 지각편향이 관련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론지각 관련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 크기는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대의견과 의견강도는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들이었다. 이슈 및 의견표명 대상과 관계없이 반대의견을 가진 집단이 의견표명의사가 낮은 것은 이슈의 사회적 가치가 의견표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을 가질수록 의견표명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개인이 가진 의견이 의견표명의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시사한다. 특정 이슈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기 마련인데, 개인의견이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는 의견표명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견강도가 클수록 의견표명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의견강도가 의견표명의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여론지각은 어느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침묵의 나선이론의 핵심인 여론지각이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는 여론지각 준거집단이나 의견표명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견이나 지각편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개인의견과 지각편향이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와 연결시켜보면 여론지각만으로 의견표명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각편향의 경우 반대편향,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 의견이 반대에 가깝다고 지각할 때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에 대해 자기지역에서 의견표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찬성에 가깝다고 인식하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 생각에서 공개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과 다르게 반대편향집단에서 오히려 의견표명의사가 낮게 나타난 것은 무편향집단과 비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편향집단은 다수지각집단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견강도와 지각된 타인의 의견강도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각편향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반대편향집단이 의견표명의사가 낮았다는 것은 역으로 지각편향이 없는 다수지각집단에서 여전히 의견표명의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침묵의 나선이론이 큰 전제에서는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슈든 지역이슈든 다수지각이 의견표명의사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지각 자체만으로 의견표명의사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을 교차하여 여론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의견형성과정에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면서도 침묵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가장 많았으며, 자신이 소수의견이라고 지각하면서도 의견을 표명하는 ‘목소리 높이는 소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여론형성과정에서 다수는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한다고 지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다수의견을 추종하는 소극적 개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지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하드코어는 소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유형들은 지역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 여론형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타지역의 다수의견-의견표명 집단을 제외하고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역할유형 모두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많았다. 특히 소수지각집단은 의견표명 여부를 막론하고 반대편향이 찬성편향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하는 문화적 편파인식이 발현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는 반대의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규범적인 의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반대편향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찬성편향자보다 의견표명에 언제나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편향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할 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지각하면서도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반대편향자의 수는 의견표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타지역에서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말하는 하드코어의 존재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하드코어는 소수의견지각임에도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밝혀진 하드코어는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지각하면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의견에 가깝다고 지각하고 의견표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타지역

에서 의견표명의사가 더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소수의견지각과 타지역에서의 의견표명처럼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견의 우월성이 의견표명을 유도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여론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견표명은 단순히 여론지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의견과 지각편향 등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여론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의견분포가 상이한 다양한 지역들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가 상이한 이슈들을 선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무곤·안민호·양승찬 (2001). 『미디어와 투표행동』. 서울: 삼성언론재단.
- 박선희·한혜경 (2007). 지역과 세대간 여론양극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과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9호, 178~223.
- 박성희·박은미 (2007).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유형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여론조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9호, 284~323.
- 박정순·원우현·김정탁 (1987). 다원적 무지현상과 제3자 효과에 대한 논의: 남북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여론인식의 사례 연구. 『신문학보』, 22호, 5~28.
- 양승찬 (1998). 사회시스템 성격을 고려한 침묵의 나선이론 연구: 의견분위기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호, 72~116.
- _____ (2003). 16대 대통령선거와 미디어, 『대통령선거와 미디어』.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05). 침묵의 나선이론, 『미디어와 유권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미영 (2005).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지각에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연구: 다원적 무지 가설(Pluralistic

- Ignorance)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5권 1호, 195~230.
- 이준웅 (2001).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의견 표명: 제 16대 총선 예측조사 실패에 대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논의. 『한국방송학보』, 통권 15-1호, 199~236.
- 한혜경 (2003). 인터넷 이용자의 여론지각과 의견표현: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23호, 189~222.
- Cooley, C. (1956).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Fields, J. M. & Schuman, H. (1976). Public beliefs about the beliefs of the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40, 427~448.
- Glynn, C. J. (1989). Perception of others' opinions as a component of public opinion. *Social Science Research*, 18, 53~69.
- Glynn, C. J., Hayes, A. F. & Shanahan, J. (1997). Perceived support for one's opinions and willingness to speak out: A meta-analysis of survey studies on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61, 452~63.
- Glynn, C. J., & Park, E. (1997). Reference groups, opinion intensity,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9(3), 213~232.
- Krassa, M. A. (1988). Social groups, selective perception, and behavioral contagion in public opinion. *Social Networks*, 10, 109~136.
- Lasora, D. L. (1991). Political outspokenness: Factors working against the spiral of silence. *Journalism Quarterly*, 68, 131~140.
- Noelle-Neumann, E. (1993).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5). Public opinion and rationality. In T. L. Glasser and C. T.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pp.33~54). NY: The Guilford Press.
- O'Gorman, H. J. & Garry, S. L. (2001). Pluralistic ignoranc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0, 449~458.
- Scheufele, D. A. (1999). Deliberation or dispute? An exploratory study examining dimensions of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1, 24~58.

Scheufele, D. A. & Eveland Jr., W. P. (2001).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25~44.

Scheufele, D. A. & Moy, P. (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1), 3~28.

Schumpeter, J. A. (1943/197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Allen and Unwin. 이상구 역 (1985).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서울: 한서출판사.

Willnat, L, Lee, W. & Detenber, B. H. (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4), 391~412.

Wyatt, R., Katz, E. & Kim, J. (2000). How feeling free to talk affects ordinary political conversation, purposeful argument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1), 99~114.

Yang, S. (1997).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speak out in the public sphere: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최초 투고 2008. 2. 29, 최종 원고 제출 2008. 4. 30)

The Influence of One's Opinion, Perceived Public Opinion, and Perception Bias on Expression of Opinion

Sun-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

Hye-Kyoung Ha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perception of opinion climates influences willingness to express one's opin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pinion perception and opinion expression in different regions and issues. The results show that one's opinion and the intensity of opinion affect the expression of opinion about national and regional issues in Busan and Gwangju. People who perceive their opinions as majority are more willing to express theirs about national and regional issues in Gwangju, but not in Busan.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perceived public opinion does not predict the expression of opinion in both cities. People who perceive their opinions more favorable about regional issue have lower intention to express their opinions than people who perceive their opinions same as others'. In summary, one's opinion and perception bias about controversial issues are important variables influencing expression of opinion, and the influence of perceived public opinion on opinion expression varies in different regions with different distribution of public opinion. This study found 'new hardcores' who perceive their own opinion as minor but more valuable and have the intention to speak out in places more difficult to express.

Keyword: expression of opinion, one's opinion, opinion intensity, perceived public opinion, perception bias, role in public opinion formation, region